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간 소비지출패턴 비교

A Comparison of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between working-wife families and nonworking-wife familie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부교수 정순희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Associate Professor: Joung, Soon 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differences in expenditure patterns between working-wife families and nonworking-wife families. The data used in the study is 4,506 husband-wife families take from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in 1996. Of the sample, 42.3% are working-wife families.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are analyzed in two ways. One is the budget share of each given expenditure and the other is elasticity of those expenditur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the differences between working-wife families and nonworking-wife families in the budget share of each given expenditure. In the budget shares of each given expenditure, nonworking-wife families share more than working wife families for food and medicine. And working-wife families allocated more on public transportation than their counterparts. Second, there are also differences between working-wife families and nonworking-wife families in income elasticities.

I. 서론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 가정에 나타난 특성중의 하나로 기혼여성의 경제 참여 증대를 들 수 있겠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83년 33.6%에서 1997년에는 49%로 나타나 취업률의 두드러진 증가 현상을 볼 수 있다(통계청, 1998).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 소비수준의 향상과 함께 추가적인 소득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어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가 유발되었으며, 둘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등과 같은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회의식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셋째,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함께 30대이후의 여성의 대부분이 육아에서 벗어나게 됨과 동시에 가사노동을 대신해 주는 가정용품의 확대에 따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켰기 때문이다(제미경·박명희, 1993).

주부의 취업은 여성 개인, 가족구성원, 가계 전체의 경제적 복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가계 소비지출과 관련하여 주부취업은 취업에 따른 추가적인 소득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즉, 주부소득이라는 추가적인 소득은 총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가정의 소비지출에는 소득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가계는 저축여력 및 구매력이 증대되고 궁극적으로 가구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게 된다.

또한 주부취업은 가계의 소비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데, 먼저 주부의 취업상태는 교통비, 외출의복비등 취업비용이라는 새로운 형태 및 규모의 지출을 발생시켜 가계 소비지출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양세정, 1999). 즉, 주부의 취업으로 인해 교통비, 탁아비 또는 직업의 유형에 따라 피복비, 외식비, 교제비 등의 지출이 높아 질 수 있다. 또한 주부의 취업은 소비자로서 주부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폐자원은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시간자원은 증가시킬 수 없다는 한계속에서 취업주부로 하여금 역할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편의주의 생활양식으로 변화하도록 한다(이승신·김기욱·김경자·심영·정순희, 1996).

이렇듯 주부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획득과 특정비목에의 지출발생은 가계의 소비지출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업주부 가계의 경우 전업주부 가계와는 다른 소비지출패턴을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소비지출구조와 관련하여 주부의 취업유무가 소비지출비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개별가계의 소비지출패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취업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부의 취업에 따른 소비지출 패턴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소비지출구조를 분석하여 두 유형의 가계간 지출구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다.

둘째,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주부취업에 따른 소비지출

주부의 취업은 가계소득의 실질적 증대를 통해 구매력의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가계의 생활양식을 변화시켜 가계 소비 지출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주부취업과 소비지출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도 주부취업의 가계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을 살펴본 것과 주부취업과 시간절약형 재화 및 서비스 지출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부취업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는 취업동기, 계속적인 취업 유지 등의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양세정(1997)은 주부취업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계소득의 원천을 조사한 결과 취업주부가계의 경우 가계의 총소득은 남편으로부터 약 60%, 취업주부로부터 33%인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주부의 소득이 가계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점차 증

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이 연구는 취업주부가계의 경우 가처분 소득에서 총소비지출을 공제할 경우 흑자액수는 약 6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업주부가계의 경우 약 31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취업주부가계의 흑자액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구현정(1998)은 주부취업이 가계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총가계소득중 주부소득의 비중은 고소득가계의 경우 32%, 저소득가계의 경우 54%이지만, 취업으로 인한 비용을 공제할 경우 주부취업이 총가계소득에 미치는 순시기여도는 고소득가계의 경우 21%, 저소득가계의 경우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주부취업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기여도 연구는 Hanson과 Ooms(1991)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미국의 1980년-83년 CES 자료를 이용하여 가정의 경제적 지위를 남편의 소득을 이용하여 상, 중, 하로 구분하고 취업으로 인한 추가지출을 공제한 취업주부의 가계경제기여도를 분석하였는데, 남편소득이 저소득인 경우 취업주부의 가계소득에의 기여도는 37%, 중간소득가계의 경우 17%, 고소득가계의 경우 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수의 연구자들이 주부의 취업과 관련하여 시간절약형 재화 및 서비스사용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를 했으며, 이와 더불어 취업관련 지출에 관하여도 함께 분석되어 지기도 했다. Democratic Study Group(1990)은 주부 취업의 가계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계소비지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가계의 소득이 동일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계의 소비지출 규모를 세분화하여 비교한 결과 개인교통, 가사서비스, 자녀양육서비스, 외식, 여성복귀, 월세, 교육 및 각종 보험료 등에 있어 취업주부가계의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소비지출비목중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외식비 지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외식비에 대한 지출의 경우 Lee & Brown(1986)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취업이 오히려 외식비의 지출을 낮추며, Goebel & Hennon(1983)는 주부의 취업이 외식비지출에 독립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여

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생활양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소비패턴과 외식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리라 예상되지만 일관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한편 일부 연구들은 주부 취업과 관련하여 가계소비지출에 관한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16개의 가계지출 세부 항목에 대한 주부의 취업효과를 살펴본 Rubin, Riney 와 Molina (1990)의 연구는 가계소득으로 중산이상과 이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중산층이상 집단에서는 모든 지출 비목에 대해 주부의 취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산층이하 집단에서는 식료품, 외식, 월세, 개인교통비 등에서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 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이 큰 것으로 분석되어 졌다. 우리나라 실증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주부취업과 가계소비지출간에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기춘과 민현선(1992)에 따르면, 주부의 취업은 가계의 소득구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출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주부의 취업에 따라 식료품(외식비 포함),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 교통통신, 기타 소비지출 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제미경과 박명희(1993)는 서울지역 주부의 시간절약서비스 지출과 관련요인을 분석하면서 도시가계를 전업주부 가계, 전문직 주부 가계 및 비전문직 주부 가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결과 외식, 배달음식 및 세탁서비스에 대해서는 각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옷수선과 파출부사용에 있어서는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전문직 주부 가계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세정(1999)의 연구결과를 보면 주부의 취업에 따라 취업관련필수 지출의 성격을 지니는 보육료, 교통비 등에서 다소 지출이 있을 뿐이고, 취업편의를 위한 지출을 자제하는 대신 주부에 의한 추가 소득분의 대부분을 가계의 저축과 여타소비수요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비지출의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

1) 사회적인 특성

사회적인 제특성들은 비록 종단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 특성에 비해 안정적이나 횡단적인 측면에서는 특성별로 중요한 지출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계지출패턴차이를 설명하는데 기여도가 높은 요인들이다.

(1) 교육수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소비와 생산과정에서 관리기술과 효율성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Michael, 1973), 실질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계는 소비재와화 용역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될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주부의 교육수준이 가계의 지출수준 및 패턴에 유의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나 관계의 방향은 특정비목별로 차이로 보이고 있다(정영숙, 1993; 최은숙, 1986; Horton & Hafstrom, 1983; Norum, 1989).

(2) 연령

가계가 일정 시점 이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재화나 경험이 현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계소비지출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령은 일반적으로 가족생활주기의 단계를 반영하게 되고 가족의 유구는 각 단계별로 달라지는데, 각 단계마다 가계는 가족원 요구간의 평형상태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소비패턴이 변화하게 된다. 범수인·문숙재(1992)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의 생활주기에 따라 가정의 소득과 지출패턴이 변화하며 주택문제, 자녀교육문제, 자녀결혼자금문제, 노후문제와 관련된 요구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연령이 더 젊은 가계가 가정의 연령이 많은 가계보다 내구재 소비지출이 높게 나타나고, 피복에 대한 요구도는 가정의 연령이 많을 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졌으며(Magabi, Chung, Cha, Yang, 1991),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비와 피복비 지출은 계속 증가하다가 가족원이 축소됨에 따라 그 비용이 감소한다(Jorgenson, Lau and Stoker, 1981).

(3) 직업

소비유형은 직업에 따라 상이하며 소비에 미치는 직업의 종류의 차이가 기대소득과 가족원의 선호를 반영하게 되는데, 양세정(1999)의 연구에 의하면 사무직과 관리전문직인 주부들은 교통지출비가 다른

직종에 비해 더 많은데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교통비 지출은 다소 적은 반면 공공교통비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주택소유형태

주인숙·양세정(1997)의 연구에 따르면, 주거상태에 따라서 가계의 소비지출이 다르게 나타나며, 자가인 경우는 교육교양오락비가 우위적이며 전세의 경우에는 내집마련등의 생필품 우위의 유형이 타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나타난다고 하여 주택의 소유형태가 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했다. 또한 임차 가계의 경우에는 월세로 인해 주택소유가계보다 주거비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덕순·정운영, 1998), 비자가 거주가계는 향후 자가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성향이 낮음에 따라(Paulin, 1995) 교육비지출 또한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 하였다(양세정·이윤금, 1997).

2) 경제적 특성

(1) 소득

소비지출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소득은 재화에 대한 지출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각 품목의 소비지출은 소득수준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가는 그 품목의 소득탄력성에 의해 측정되고 각 품목들은 소득탄력성을 기준으로 사치재, 필수재 및 열등재로 분류되어 진다(Katona, 1975). 한국소비자보호원(1993)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식생활비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비, 교통비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소비지출에 관한 정은주·이기춘(1996)의 연구에서는 외식, 외의, 교양오락, 개인교통 등의 선택적 비목들의 소비지출이 가계 소득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2) 저축

가계지출과 저축간의 배분형태에 있어서 중소득층의 주부의 경우 저소득층에 비해 보다 많이 추가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은 추가소비지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Mungenda, Hira 및 Fanslow(1990)의 연구에 의하

면 저축수준과 부채지불능력, 생활수준 등을 조합적으로 사용하여 재정적인 연구를 한 결과, 취업자의 수가 그 가계의 저축액과 순자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고보선, 이영호 1995에서 인용).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1〉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간의 예산할당패턴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간의 각 지출비목의 소득탄력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각 가계의 소비지출패턴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자료는 1996년 통계청 자료인 가구 소비실태 조사 보고서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 한정하여 총 6,222가구에 해당하며, 이 가구 중 배우자가 없는 가구와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를 제외하고, 무상주택과 사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하고 총 4,506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전업주부가구는 2,598가구이고, 취업주부가구는 1,908가구이다.

3. 변수의 선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출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예산할당패턴과 소득탄력성이라는 두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예산할당패턴을 통하여 총소비지출중의 소비지출비목에 있어서 생활필수적, 선택적 비목의 할당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소득탄력성의 차이를 비교해봄으로써 두 집단간의 소비지출행동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식료품, 외식, 주거, 교육, 피복 및 신발, 광열수도, 보건의료, 교양오락, 가사용품, 기타소비지출 10개의 소비지출항목에서 교통통신비를 보다 세분화하여 공공

교통비와 개인교통, 통신비로 하여 13개 지출비목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13개의 소비지출 각각이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연평균 예산할당비율이 측정되었고, 소득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각 지출범주가 소득과 다른 독립변수들에 의해 회귀되어졌다. 소득이외의 독립변수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가구주연령, 주부의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저축, 주택소유형태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총소비지출을 항상 소득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Dardis, Derrick & Lehfeld, 1981; 문숙재·정순희, 1995). 가구주연령과 가구주직업, 주부의 교육수준, 주택소유형태는 가변수화 하였으며 저축은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가구주연령의 경우에는 20대를 준거집단으로 하였으며, 가구주의 직업은 통계청의 분류에 근거하여 관리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 및 기타로 나누었으며 준거집단은 노무직 및 기타로 하였다. 주택소유의 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로 구분하여 월세를 준거집단으로 처리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에 제시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지출도 증가하나 그 증가율이 감소하므로 (Horton & Hafstrom, 1985; 문숙재·정순희, 1995) 위의 식과 같이 각각이 이중로그 형태 속에서 총 소비지출의 함수로 모델화 되었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2. 연구자료의 분석

1)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예산할당패턴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비목별 연간지출비율은 다음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예산할당비율분석을 한 결과 일부항목에서만 차이를 보였고, 총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총지출액(ln)	13개 비목 각각의 소비지출액을 총합짓의 자연로그 : 항상소득함수의 대응변수
사회적 특성 주부의 교육수준 가구주직업 가구주연령 주택소유형태	1=중졸이하, 2=고졸, 3=전문대졸, 4=대졸, 5=대학원이상 1=관리전문직, 2=준전문직, 3=사무직, 4=서비스직, 5=노무직 및 기타 1=20대, 2=30대, 3=40대, 4=50대, 5=60대이상 1=자가, 2=전세, 3=월세
경제적 특성 연간소득 저 축	연간소득액 총저축액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천원, %)

범주형 변수		취업주부가계(n=1,908)	전업주부가계(n=2,598)
		빈 도(%)	빈 도(%)
주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784 (41.09)	772 (29.72)
	고등학교	770 (40.36)	1280 (49.27)
	전문대학	88 (4.61)	160 (6.16)
	대학교	246 (12.89)	376 (14.47)
	대학원이상	20 (1.05)	10 (0.38)
가구주직업	관리전문직	172 (9.02)	498 (19.17)
	준전문직	312 (16.35)	472 (18.17)
	사무직	166 (8.70)	246 (9.47)
	서비스직	444 (23.27)	334 (12.85)
	노무직/기타	814 (42.66)	1048 (40.34)
가구주연령	20대	164 (8.60)	226 (8.70)
	30대	666 (34.91)	1076 (41.42)
	40대	682 (31.74)	584 (22.48)
	50대	316 (16.56)	458 (17.63)
	60대이상	80 (4.19)	254 (9.77)
주택소유형태	자 가	836 (43.82)	1254 (48.27)
	전 세	792 (41.51)	1122 (43.19)
	월 세	280 (14.69)	222 (8.54)
연속형 변수		취업주부가계	전업주부가계
		평 균	평 균
연간소득		32887.26	28980.57
총저축액		21163.43	23231.26

〈표 3〉주부의 취업에 따른 비목별 예산할당 비율과 지출액

(단위: 천원)

지출비목	취업주부가계 (n=1908)		전업주부가계 (n=2598)	
	예산할당	S. D	예산할당	S. D
총소비지출	100.0(1568490)	1178800	100.0(1619567)	1503710
식료품**	25.12(434805)	244772.0	25.74(458162)	349586.0
외식	9.38(162301)	175820.1	9.03(160701)	258572.8
주거	3.24(56063)	194263.2	4.24(75416)	571971.9
교육	9.75(168693)	215445.7	8.75(155806)	248038.1
피복 및 신발	7.67(132835)	202972.9	7.36(131035)	243824.8
공공교통*	3.08(53225)	53227.62	2.68(47760)	87296.07
개인교통	5.59(96793)	554903.6	6.78(120750)	740764.3
통신비	1.93(33342)	44578.7	1.99(35385)	52645.6
광열수도	3.32(57521)	49387.22	3.16(56305)	47012.73
보건의료***	3.35(57975)	117978.2	4.41(78578)	151506.5
교양오락	4.42(76585)	249590.8	4.19(74588)	192842.8
가사용품 및 가구집기	4.42(76534)	315632.5	4.08(72555)	318437.3
기타소비지출	18.73(324118)	493254.7	17.59(313228)	379119.4

*. 두 가계집단의 예산할당비율이 .05수준에서 유의하게 다름.

**. 두 가계집단의 예산할당비율이 .01수준에서 유의하게 다름.

***. 두 가계집단의 예산할당비율이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다름.

소비지출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예산할당비율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비목은 식료품, 공공교통, 보건의료비였다. 식료품비는 두 가계 모두 가장 큰 예산을 할당하는 비목으로, 취업주부 가계는 총소비지출의 25.12%, 전업주부 가계는 25.74%를 할당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앵겔 제1법칙에 의하여 전업주부가계의 소비생활 수준이 취업주부가계에 비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취업주부가계의 경우 식료품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타소비지출(18.73%)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교육(9.75%), 외식(9.38%) 순이었다.

보건의료비는 취업주부가계가 3.35%를 할당하는 반면, 전업주부가계는 4.41%를 할당하여 취업주부가계의 약 1.3배에 이르렀다. 보건의료비의 경우 전업주부가계가 취업주부가계보다 할당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이유는 보건의료비는 필수적인 비목이기 때문에 전업주부가계의 보다 낮은 소득이 약간 더 높은 지출비중을 낚는 결과를 산출한 것이라 사료된다. 공

공교통비의 경우에는 취업주부가계가 3.08%를 전업주부가계의 경우는 2.68%를 할당하여, 취업주부가계가 약1.1배 더 할당하고 있었는데 이는 주부가 취업을 하므로써 정기적인 이동에 소요되는 공공교통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2) 소득탄력성의 집단차이

소비지출 비목은 소득탄력성에 따라 선택재적 성향의 비목과 필수재적인 비목으로 분류하여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소비지출패턴에 대한 차이를 보기 위해 소득탄력성에 따른 집단간차이를 분석하였다. 13개의 지출 비목 각각의 소득탄력성을 비교한 결과 주거, 기타소비지출, 통신이 취업주부 가계와 전업주부가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주거비의 경우 취업주부가계가 0.63, 전업주부가계가 0.81로 전업주부가계의 소득탄력성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기타소비지출의 경우는 취업주부가

〈표 4〉 주부의 취업에 따른 비목별 소득탄력성

지출비목	취업주부가계(n=1908)	전업주부가계(n=2598)
식료품	0.59(0.02)	0.60(0.15)
외식	0.84(0.05)	0.91(0.04)
주거 *	0.63(0.08)	0.81(0.06)
피복 및 신발	1.07(0.06)	1.04(0.05)
광열수도	0.20(0.03)	0.22(0.02)
보건의료	0.82(0.09)	0.72(0.06)
교양오락	0.98(0.06)	1.00(0.05)
기타소비지출 **	0.96(0.03)	0.86(0.03)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1.01(0.71)	0.99(0.05)
교육	1.05(0.91)	1.21(0.08)
공교통	0.45(0.54)	0.41(0.05)
개인교통	0.96(0.07)	0.90(0.05)
통신 *	0.31(0.04)	0.41(0.03)

주1: ()은 z-statistics를 계산하는데 사용된 표준오차임.

* : 두 가계의 소득탄력성이 0.1수준에서 유의하게 다름.

** : 두 가계의 소득탄력성이 0.05수준에서 유의하게 다름.

계가 0.96, 전업주부가계가 0.86으로 취업주부가계의 소득탄력성이 보다 높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예산할당패턴에서와 같이 전업주부가계가 주거비를 취업주부 가계에 비해 1.3배를 보다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겠다. 즉, 주거비에 보다 많이 지출함으로써 덜 필수적인 기타소비지출과 같은 비목의 지출을 대폭 줄이도록 하여 소득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취업주부 가계와 같이 기타소비지출을 빠르게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통신비의 소득탄력성은 광열·수도비 다음으로 두 가계 모두 낮은 지출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취업주부 가계가 0.31, 전업주부가계가 0.41로 전업주부가계가 보다 높은 소득탄력성을 보인다. 이는 통신비의 세부 비목에 있어 1996년은 아직까지 이동전화 보다는 가정용 일반전화비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전업주부 가계가 소득에 따라 통신비를 늘리게 된다고 예측되어 진다. 공교통의 경우에는 취업, 전업주부가계 모두 필수제적인 성격을 띤 것에 반해 개인교통의 소득탄력성은 취업주부가계가 0.96, 전업

주부가계가 0.90으로 선택제적인 성격을 보임을 알 수 있으며, 선진국의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직장에서의 이동시 자가용 이용율이 높아 취업주부가계의 승용차 및 관련비용의 지출을 포함하는 개인교통비 지출이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Democratic Study Group, 1990)으로 보아, 우리나라도 여성의 시장참여가 보다 증가하고, 인력이 고급화, 전문화 될 것이 예상되므로, 보다 많이 자가용을 소유하고자 한다는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 13개의 지출비목 각각의 소득탄력성을 비교한 결과 주거, 기타소비지출, 통신비목이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비목별 지출과 사회·경제적 변수와의 관계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소비지출 비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가 〈표 5〉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식료품비 지출과 관련하여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 모두에서 유의한 관계를 갖는 변수는 가구주 연령, 연간소득 및 주택소유유형으로 나타났

다. 가구주연령과 연간소득이 증가할수록 식료품비 지출도 증가했지만, 주택소유형태의 영향내용은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여, 취업주부가계에서는 자가 기준집단인 월세보다 더 지출하였으나 전업주부가계에서는 전세가 월세보다 오히려 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가계의 결과는 자기집 마련이 요원한 월세에 비해 전세일 경우 자가 마련을 위한 계획이 진행중인 상태이며, 이러한 제한된 소득내에서 자가마련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식료품비의 일부를 삭감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가구주직업은 취업주부가계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에 대한 지출과 관련하여 가구주연령, 교육수준 및 주택소유형태가 두 가계에서 모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직업은 전업주부가계에서만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가구주 직업이 관리전문직과 준전문직의 경우에는 노무직/기타인 경우보다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무직/기타의 직업을 가진 경우는 월세로 살 가능성이 높아서 지출액이 보다 높지만, 관리전문직의 경우에는 자가소유확률이 제일 높고, 그 만큼 주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월세의 부담이 없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광열·수도비의 경우 가구주연령이 두 가계유형에서 모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반면 주부교육수준은 취업주부가계에서만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주부교육수준의 경우 중졸이하 집단에 비해 전문대졸과 대학원 이상은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졌으며, 대졸인 경우에는 부적의 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가구주직업과 연간소득은 전업주부가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피복신발지출과 관련해서 두 유형의 가계 모두 연간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지출하고, 취업주부가계의 피복신발비는 주부의 교육수준과 가구주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중졸이하인 집단보다 고졸인 경우 더 지출하고, 가구주 연령은 20대인 경우에 비해 다른 연령대가 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주직업과 총저축액은 전업주부가계에서만 유의하게 피복신발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오락지출과 관련해서는 주부의 교육수준과 총저축액, 그리고 가구주직업이 관리전문직인 경우 두 유형의 가계에서 모두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연령과 연간소득은 취업주부가계에서만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주택소유형태는 전업주부가계에서만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의 경우 두 유형의 가계에서 모두 총저축액이 많을수록 보건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업주부가계에서는 가구주연령이 60대 이상인 경우 기준집단인 20대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지출을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노령화로 인한 건강약품 및 관리필요성 증대와 질적요구 증대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외식비의 경우 두 가계유형 모두에서 연간소득과 정적 관계를 가져, 외식비의 지출이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아 질수록 많았다는 정은주·이기춘(199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가구주 직업은 취업주부가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노무직/기타인 가계의 경우 외식비 지출이 가장 적었다. 전업주부가계에서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대졸일 때 중졸 이하인 경우 보다 더 지출하며 전세일 때 월세보다 외식비에 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소비지출의 경우 가구주연령이 두 가계유형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취업주부가계에서는 가구주연령이 20대인 경우에 비해 30대, 40대는 덜 지출하고, 50대는 더 지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0대는 장신구나 이미용에 관한 비용이 많이 들고, 50대는 우리나라의 관습상 경조사비가 많이 들어서 일것으로 사료되어지며, 연령이 높을수록 경조비의 지출이 증가해서 60세 이상 집단의 경조비 사용은 30대가 사용하는 경조비의 2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박명숙·류정순(1998)의 연구와 관련지어 이해 할 수 있겠다.

가사용품지출과 관련해서 전업주부가계에서는 유의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취업주부가계에서는 가구주연령이 40대인 경우가 20대보다 덜 지출하고, 총저축액이 많을수록 가사용품비에 적게 지출하는 반면, 연간소득이 많을수록 보다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취업주부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본	취업주부							외식비 B(β)
	식료품비 B(β)	주거비 B(β)	광열·수도비 B(β)	피복·신발 B(β)	교양오락 B(β)	보건의료 B(β)		
주부교육수준 (중졸이하)	20902.93(0.04)	6992.50(0.02)	-2682.73(-0.03)	27871.92(0.07*)	16480.08(0.03)	5688.10(0.02)	8292.99(0.23)	
고등학교	18934.62(0.02)	52356.35(0.06*)	12538.30(0.05*)	37409.57(0.04)	20416.74(0.01)	10074.32(0.02)	15515.26(0.02)	
전문대학	-35457.1(-0.05)	18013.85(0.03)	-9499.68(-0.06*)	14538.39(0.02)	67417.89(0.09**)	-19033.2(-0.05)	-11091.60(-0.02)	
대학교	19187.73(0.01)	11488.47(0.01)	23212.43(0.05*)	-35605.5(-0.02)	8404.159(0.00)	9135.13(0.01)	71161.39(0.04)	
대학원이상	24568.87(0.05)	17350.61(0.04)	12504.91(0.12**)	-21884.2(-0.05)	-34573.9(-0.07)	-10714.8(-0.04)	-43781.53(-0.12**)	
가구주 연령 (20대)	51014.43(0.10*)	11205.96(0.03)	19004.85(0.18***)	-44742.1(-0.11*)	-18300.6(-0.04)	7228.97(0.03)	-39978.36(-0.11*)	
30대	89801.74(0.14***)	46109.67(0.09*)	17009.66(0.13**)	-4294.24(-0.01)	-12034.3(-0.02)	8384.78(0.03)	-11193.99(-0.02)	
40대	58517.67(0.05)	81619.49(0.08**)	9220.92(0.04)	-71232.3(-0.07**)	-21173.7(-0.02)	19210.74(0.03)	-26748.45(-0.03)	
50대	70785.19(0.08**)	-18176.8(-0.03)	-7536.12(-0.04)	6828.623(0.01)	54809.95(0.06*)	4023.80(0.01)	50082.73(0.08*)	
60대이상	28927.31(0.04)	-5676.29(-0.01)	-985.83(-0.01)	11792.51(0.02)	11794.15(0.02)	20275.68(0.06*)	46494.87(0.10***)	
가구주직업 (노동력/기타)	4638.83(0.01)	-15051.6(-0.02)	-11500.9(-0.07**)	7107.17(0.10)	2628.415(0.00)	19586.98(0.05)	50434.78(0.08**)	
사무직	-3.391(0.00)	-19016.4(-0.04)	-5666.41(-0.05*)	5860.69(0.01)	17778.94(0.03)	-15487.8(-0.06*)	5239.71(0.01)	
서비스직	56610.00(0.12**)	-144596(-0.37***)	10733.74(0.11**)	-3563.74(-0.01)	18168.90(0.04)	10632.34(0.05)	-13202.60(-0.04)	
자가	30064.09(0.06)	-179943(-0.46***)	682.60(0.01)	5826.51(0.01)	49519.90(0.10**)	7434.99(0.03)	2716.97(0.01)	
주택소유형태	-0.121(-0.01)	0.34(-0.04)	-1.9E-02(-0.01)	5.42E-02(0.01)	0.66(0.06*)	0.43(0.09**)	-0.23(-0.03)	
전세	5.14(0.34***)	0.67(0.06)	0.72(0.23***)	2.72 (0.21***)	-0.33(-0.02)	0.21(0.03)	3.38(0.31***)	
총지출액	170426.7***	158595.7***	19501.54***	49852.95*	38952.19	31187.76*	72128.17***	
연간소득	0.17	0.10	0.10	0.07	0.02	0.03	0.12	
상수	23.31***	13.48***	13.63***	8.62***	2.86***	4.04***	16.75***	
R square								
F-value								

〈표 5〉 계속

표본	취업 주 부						
	기타소비지출	가사용품	공교통	개인교통	통신비	교육비	
소미지출	B(β)	B(β)	B(β)	B(β)	B(β)	B(β)	
주부교육수준 (중졸이하)	-46871.4(-0.05)	-21405.6(-0.03)	-10132.41(-0.09)	86688.93(0.08**)	-1033.24(-0.01)	-929.62(-0.00)	
고등학교	-38343.0(-0.02)	50459.53(0.03)	-11677.38(-0.05***)	19703.06(0.01)	3730.63(0.02)	-31324.84(-0.03)	
전문대학	-83816.7(-0.06)	-5391.96(-0.01)	-11548.3(-0.07*)	101427.03(0.06*)	-11942.56(-0.09**)	21659.12(0.03)	
대학교	-158540(-0.03)	13627.65(0.00)	-31310.77(-0.06**)	17595.91(0.00)	-3419.96(-0.01)	-167629.44(-0.08***)	
대학원이상	-84760.8(-0.08*)	-40048.0(-0.06)	-24148.17(-0.22***)	-50563.07(-0.04)	-8313.89(-0.09*)	126507.20(0.28***)	
30대	-92767.8(-0.09*)	-74440.9(-0.11*)	-11529.06(-0.10*)	-26418.45(-0.02)	-5356.00(-0.06)	221780.88(0.49***)	
40대	153833.8(0.12**)	-32611.3(-0.04)	22664.05(0.16***)	-73747.89(-0.05)	-2994.75(-0.03)	80188.17(0.14***)	
50대	-56855.8(-0.02)	-75275.8(-0.05)	2952.43(0.01)	-96957.86(-0.04)	-12238.21(-0.06)	-15175.18(-0.01)	
60대 이상	32114.34(0.02)	-47825.6(-0.04)	4259.52(0.02)	49886.26(0.03)	10341.52(0.07*)	-9637.25(-0.01)	
가구주직업 (노무직(기타))	20473.37(0.02)	-19855.2(-0.02)	1176.19(0.01)	-5199.91(-0.00)	10967.08(0.09**)	-33411.65(-0.06*)	
관리전문직	15052.65(0.01)	-4176.46(-0.00)	2608.84(0.01)	-77085.32(-0.04)	-6173.74(-0.04)	-22252.52(-0.03)	
준전문직	30711.36(0.03)	8404.451(0.01)	-8581.27(-0.07**)	-47048.98(-0.04)	1011.45(0.01)	-39136.51(-0.08**)	
사무직	94175.13(0.10**)	3425.084(0.01)	-5525.53(-0.05)	93399.69(0.08*)	4871.61(0.05)	35988.96(0.08*)	
서비스직	46254.32(0.05)	30559.78(0.05)	906.38(0.01)	21823.69(0.02)	-2629.86(-0.03)	8944.59(0.02)	
자가	-1.03(-0.05)	-0.81(-0.06*)	-0.11(-0.05)	-0.61(-0.03)	-9.06(E-02(-0.05)	-0.24(-0.03)	
전세	6.96 (0.23***)	4.24(0.21***)	0.45(0.14*)	2.44(0.07*)	0.44(0.16***)	1.50(0.11***)	
상수	114579.3*	2102.73	58985.87	-12276.7	25096.54***	-12869.1	
R square	0.10	0.04	0.13	0.02	0.05	0.16	
F-value	12.76***	5.20***	17.34***	2.66***	6.13***	21.91***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전업주부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본	전업주부							외식비 B(β)
	식료품비 B(β)	주거비 B(β)	광열·수도비 B(β)	피복·신발 B(β)	교양오락 B(β)	보건의료 B(β)		
고등학교	6797.78(0.01)	85791.36(0.08**)	1669.01(-0.02)	11107.02(0.02)	27869.10(0.07**)	-4843.04(-0.02)	23245.54(0.05)	
전문대학	-6158.72(-0.00)	118305.1(0.05*)	-5692.23(-0.03)	626.99(0.002)	15823.80(0.02)	-4099.83(-0.01)	30227.13(0.03)	
대학교	54799.24(0.06*)	181214.6(0.11***)	3139.48(0.02)	29997.05(0.04)	13079.55(0.02)	-16010.1(-0.04)	49801.69(0.07**)	
대학원이상	-17490.3(-0.00)	139393.6(0.02)	5170.68(0.01)	-86473.7(-0.02)	21610.74(0.02)	20521.20(0.01)	1494.63(0.00)	
30대	52503.94(0.07*)	3399.94(0.00)	6352.88(0.07)	-2358.99(-0.01)	126.57(0.01)	155.291(0.00)	-8009.75(-0.02)	
40대	84671.79(0.10**)	73686.91(0.05)	17695.06(0.16***)	-6741.05(-0.01)	-19012.9(0.00)	-3289.30(-0.01)	-12184.2(-0.02)	
50대	118500.5(0.13***)	4588.23(0.00)	17524.72(0.14***)	20592.77(0.03)	29599.03(-0.04)	1509.23(0.00)	48352.12(0.07*)	
60대이상	133735.1(0.11***)	120523.1(0.06*)	22791.89(0.14***)	-25315.8(-0.03)	43227.87(0.06*)	32544.95(0.06*)	34138.98(0.04)	
관리전문직	127.10(0.00)	-120150(-0.08**)	7663.62(0.06**)	37780.76(0.06*)	26710.05(0.07*)	-18694.1(-0.05)	17735.37(0.03)	
준전문직	13891.62(0.02)	-96475.0(-0.07**)	-4318.72(-0.04)	26190.26(0.04)	10975.02(0.06)	-14555.1(-0.04)	24955.28(0.04)	
사무직	14568.25(0.01)	-80572.3(-0.04)	-4163.86(-0.03)	22699.36(0.03)	7392.61(0.02)	-5418.46(-0.01)	14422.48(0.02)	
서비스직	-39461.2(-0.04)	-67595.9(-0.04)	1698.16(0.01)	10506.08(0.01)	-2094.05(0.01)	7291.61(0.02)	-11060.5(-0.01)	
자가	-3853.44(-0.01)	-85368.5(-0.08)	10036.77(0.11**)	21567.36(0.04)	-8504.43(-0.00)	12773.60(0.04)	-27586.5(-0.05)	
전세	-63165.2(-0.09**)	-153627(-0.13***)	1074.54(0.01)	1334.43(0.00)	-17533.8(-0.02)	3659.74(0.01)	-55550.3(-0.11**)	
총저축액	-0.37(-0.03)	4.734E-03(0.00)	2.308E-02(0.02)	0.77(0.10****)	0.30(0.05*)	0.40(0.08****)	-0.15(-0.02)	
연간소득	7.84(0.37***)	1.46(0.04)	0.24(0.09**)	2.38(0.16****)	1.13(0.10****)	0.36(0.04)	3.34(0.22***)	
상수	184423.1***	90519.32***	30078.35***	9355.12	17156.83	59252.77***	70342.99	
R square	0.19	0.02	0.09	0.09	0.04	0.02	0.08	
F-value	38.70***	3.65***	15.54***	15.26***	6.89***	3.68***	13.46***	

〈표 6〉 계속

표본	진업주부						
	기타소비지출	가사용품	공교통	개인교통	통신비	교육비	
	B(β)	B(β)	B(β)	B(β)	B(β)	B(β)	
주부교육수준 (중졸이하)	고등학교	26259.50(0.04)	25950.19(0.04)	7208.66(0.04)	-50702.05(0.03)	1265.02(0.01)	17474.47(0.04)
	전문대학	56481.38(0.04)	22417.49(0.02)	-3886.76(-0.01)	-112801.49(-0.04)	5809.38(0.03)	37023.38(0.04)
	대학교	-13037.0(-0.01)	11502.55(0.01)	6090.60(0.03)	-112195.58(-0.05*)	-3787.91(-0.03)	61499.58(0.09***)
	대학원이상	28740.13(0.01)	14222.95(0.00)	23753.64(0.02)	-182998.27(-0.02)	-10715.27(-0.01)	262261.19(0.07***)
	30대	-39952.3(-0.05)	-12202.50(-0.02)	-6920.88(-0.04)	-63630.50(-0.04)	-3504.93(-0.03)	100502.24(0.20***)
가구주연령 (20대)	40대	-7805.93(-0.01)	4711.67(0.01)	-5137.67(-0.03)	-34480.01(-0.02)	-7664.25(-0.06)	257304.08(0.43***)
	50대	152174.8(0.15***)	28458.97(0.03)	25379.22(0.11**)	-159279.42(-0.08*)	-8155.85(-0.05)	20484.92(0.03)
	60대이상	146870.1(0.12***)	62544.33(0.06)	26823.64(0.09**)	-144093.93(-0.06)	-7666.52(-0.06)	-21721.02(-0.03)
	가구주직업 (노무직/기타)	63740.47(0.07**)	25991.82(0.03)	11404.55(0.05*)	-6655.52(-0.00)	9607.76(0.07**)	58802.79(0.09***)
	관리전문직	36403.05(0.04)	-14289.26(-0.02)	-2153.39(-0.01)	48154.23(0.03)	953.28(0.01)	28147.91(0.04)
주택소유형태	준전문직	26820.77(0.02)	23452.40(0.02)	16687.63(0.06*)	37445.97(0.02)	-6355.76(-0.04)	-24326.17(-0.03)
	사무직	20872.71(0.02)	10909.50(0.01)	6822.29(0.03)	61133.01(0.03)	1845.57(0.01)	-32560.50(-0.04*)
	서비스직	45854.63(0.06)	25985.06(0.04)	690.92(0.00)	68868.42(0.05)	-1054.33(* 0.01)	75710.83(0.15***)
	자가	2965.63(0.00)	10465.90(0.02)	-2217.72(-0.01)	73052.23(0.05)	-3577.81(* 0.03)	50206.46(0.10**)
	전세	-3.8E-02(-0.00)	1.821E-02(0.00)	-0.15(-0.05*)	0.52(0.02)	-5.967E-02(* 0.04)	0.25(0.03)
총저축액	5.33(0.23***)	-2.613E-02(-0.00)	0.49(0.09**)	4.25(0.10***)	7.16(0.23***)	2.50(0.17***)	
연간소득	74609.47*	26794.49	26104.66	27187.56	21346.54***	-112267***	
상수	0.15	0.01	0.04	0.01	0.06	0.259	
R square	27.94***	1.46	7.27***	2.40**	10.45***	56.48***	

* p < .05, ** p < .01, *** p < .001

공교통의 경우 가구주직업과 연간소득이 두가계유형 모두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취업주부가계에서는 주부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경우 공교통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였고, 전업주부가계에서는 가구주연령과 총저축액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교통비의 경우 주부교육수준과 연간소득이 두가계유형 모두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인교통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소득이 높을수록 개인교통비를 많이 지출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가소유의 가계일 경우 선택재적인 비목에 지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소득과 개인교통비가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취업주부가계를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분석한 양세정(1999)의 연구결과에서 고소득층가계일수록 취업관련비목 중 개인교통비의 지출이 많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겠다.

통신비지출은 가구주직업과 연간소득이 두가계유형 모두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주부의 교육수준은 취업주부가계에서만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주부의 교육수준이 대졸일 때 중졸이하일 때 보다 덜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일수록 전화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문화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가구주직업의 경우에는 관리전문직이 노무직/기타에 비해 더 많이 지출하고 연간소득이 많을수록 통신비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육비의 경우, 주부교육수준, 가구주연령, 가구주직업, 주택소유유형, 연간소득 대다수의 변수가 두가계유형 모두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지역 가계를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로 나누어 소비지출 패턴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에서 조사된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의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가계 중 취업주부가계는 1,908가계였으며, 전업주

부가계는 2,598가계였다. 구체적으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간의 소비지출패턴을 비교 분석 즉, 각각의 비목이 주부의 취업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연구하였으며, 소비지출 10대 비목을 세분하여 13대 비목으로 나누고, 각 가계의 예산할당패턴과 소득탄력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각 지출비목에 할당된 예산비중을 보면 전업주부가계가 식료품비목과 보건의료비목에 유의하게 보다 많이 비중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교통비의 경우는 취업주부가계가 유의미하게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였다. 평균적으로 식료품비는 두가계 모두 가장 큰 예산할당비목이었으나 전업주부가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업주부가계가 취업주부가계보다 필수재의 성격을 띄는 식료품비목에 보다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보건의료비는 전업주부가계가 할당하여 취업주부가계의 약 1.3배에 이르렀는데, 보건의료비의 경우 전업주부가계가 취업주부가계보다 할당비율이 높은 이유는 보건의료비가 필수적인 비목이기 때문에 전업가계의 더 낮은 소득이 취업주부가계 보다 더 높은 지출 비중을 산출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공교통비의 경우에는 취업주부가계가 약 1.1배 더 할당하고 있었는데, 이는 주부가 취업함으로써 정기적인 이동에 소요되는 공공교통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취업주부가계의 그밖의 비목별 할당비율을 보면 기타소비지출, 교육, 외식비목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업주부가계의 경우도 비목별 할당 순위가 다르지 않게 나타나, 개인교통, 보건의료, 주거, 통신비목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13개의 지출비목 각각의 소득탄력성을 비교한 결과 주거, 기타소비지출, 통신비목이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의 경우 취업주부가계가 전업주부가계의 소득탄력성이 보다 높게 나타났고, 기타소비지출의 경우는 취업주부가계의 소득탄력성이 보다 높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예산할당패턴에서와 같이 전업주부가계가 주거비를 취업주부가계에 비해 1.3배를 보다 많이 지

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겠다. 즉, 전업주부가계는 주거비에 보다 많이 지출함으로써 덜 필수적인 기타소비지출과 같은 비목의 지출을 대폭 줄이도록 하여 소득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취업주부 가계와 같이 기타소비지출을 빠르게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통신비의 소득탄력성은 전업주부가계가 보다 높은 소득탄력성을 보이는데, 이는 통신비의 세부 비목에 있어 자료의 시기상 1997년은 아직까지 이동전화가 널리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동전화보다는 가정용 일반전화비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탄력성의 계수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필수재적인 성격이 강하며, 통신비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전업주부 가계가 소득에 따라 통신비를 늘리게 되는 것이라 예측되어 진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몇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주부취업이 가계의 소비지출패턴에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주부의 취업을 고려하여 국가 경제적 측면이나 기업 운영 입장 모두에서 가사노동대체 상품 개발, 탁아시설 또는 필수재와 선택재에 따른 상이한 지출 비중의 고려 등 민감한 대처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할 수 있다.

둘째, 통신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 즉, 주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음에 따라 지출의 할당 비율이 작아지는 비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신비의 경우 97년 이후 개인 휴대통신 등의 발달과 더불어 취업주부들의 수요가 증가될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비목에 대한 지출의 행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교통비목을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교통비지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취업주부가계의 공공교통비지출의 할당이 전업주부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개인교통비지출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통근용 자가용의 사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출의 형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 보건의료비의 지출은 취업주부의 경우 예산할당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보

건의료비목은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필수재적인 성향을 띄는 변수로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건강진단과 같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게 되기 때문에, 가정소비지출에서의 지출이 적은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보건의료비의 지출은 가계의 후생복지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계복지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요구에 대한 대처 및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인지하여 앞으로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가계를 서울지역으로 제한하여 연구함으로써 일반화하는데 비약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국적인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취업상태를 세분화하여 영향관계를 살펴보지 않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시간제인지 전일제인지와 같은 취업상태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연구는 96년도 자료로 분석되어 진 바, IMF 이전의 경제상황으로 경제위기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필수재 이외의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가계의 노력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그러므로 보다 최근의 사회공신력이 있는 통계청자료로서 연구함으로써 IMF 이전과 이후의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와 경제상황에 따른 비교를 해 볼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을 보완한다면, 본 연구와 후속연구의 결과는 주부의 취업여부별 소비지출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가계의 특성에 맞는 소비지출계획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고보선, 이영호(1995). 가정복지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평가변인의 영향력. *대한가정관리학회지* 33(6), 269-280.
- 김미숙(1997). 도시가계의 외식비 지출에 관한 연구-주부 취업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숙재, 정순희(1995). 소비지출 패턴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편모가 족과 양부모가 족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6(2), 53-65.
- 박명숙, 류정순(1998). 도시가계의 경조비 지출 변화 추이와 관련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7), 13-24.
- 박미희(1998).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지출 및 유형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세정(1997). 주부취업과 가계경제구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65-182.
- 양세정(1999). 주부취업의 가정경제적 기여도 측정. 대한가정학회지 37(3), 27-42.
- 양세정, 이윤급(1997). 가계의 교육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자녀수와 자녀 성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8(2), 81-95.
- 양세정, 주인숙(1997). 가계의 소비지출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277-290.
- 이승신, 김기옥, 김경자, 심영, 정순희(1996). 가계경제학. 서울:학지사.
- 제미경, 박명희(1993). 도시주부의 시간절약서비스 지출과 관련요인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3), 1-14.
- 정영숙(1993). 도서지역과 육지의 소비지출구조와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4(1), 23-38.
- 정은주, 이기춘(1996). 기혼여성 취업이 선택적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 21, 1-12.
- 최은숙(1990). 우리나라 소비지출유형의 변화 -소비 지출함수의 추정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1), 15-31.
- 통계청(1998). 도시가계연보.
- 한국소비자보호원(1993). 국민 소비 행태 및 의식 구조 조사.
- 황덕순, 정운영(1998). 주거소유형태에 따른 가계소비 지출구조 비교분석. 소비자학연구 9(4), 1-17.
- Dardis, R., Derrick, F., & Lehfeld, A. (1981). Clothing Demand in the United States: A Cross-Sectional Analysi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2), 212-221.
- Democratic Study Group(1990). The didn't come to the party : A tough decade for families in the middle. Washington D.C : U.S House of Representative.
- Goebel, K.P. and Hennon, C.B.(1983). Mother's time on meal preparation, expenditures for meals away from home, and shared meals : Effects of mother's employment and age of younger child.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 170-188.
- Horton, S.W. & Hafstrom, J.L.(1985). Income elasticities for selected consumption categories: Consumption of single-headed and two-parent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 292-303.
- Jacobs, E., Shipp, S. and Brown, G.(1989). Families of working wives spending more on services and nondurables. *Monthly Labor Review*(Feb), 15-23.
- Katona(1975). Psychology and Consumer Economic.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 1-18.
- Margrabi, F.M, Chung, Y.S, Cha, S.S and Yand, S., *The Economic of Household Consumption*, New York : Praeger Publication, 1991.
- Norum, P.S.(1989). Economic analysis of quarterly household expenditures on appare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3), 228-240.
- Paulin, G.D(1995). A Comparison of Consumer Expenditure by Housing.